

전주산 닻나무 재배 면적 확대

시·한지산업지원센터, 기존 1만7861㎡→2만1527㎡로 재배지 운영
국산닥 원활한 공급·전주한지 고품질화·한지산업 부흥 초석 기대

전주산 닻나무의 재배면적이 확대된다. 전주시와 한지산업지원센터는 기존 닻나무 재배면적 1만7861㎡(5,400여평)에 추가로 3666㎡(1,100여평) 면적을 확보, 총 2만1527㎡(6,500여평)의 재배지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재배지 면적 증가에 따라 향후 전주지역 한지업체들에게 더 많은 닻피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양 기관은 지난 2017년부터 6개 농가를 대상으로 '전주산 닻나무 수매사업'을 진행, 전주한지의 정체성 확보는 물론 안정적 국산 원료 공급 기반을 확충해 왔다.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통해 수매한 닻나무는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찌고 곱질을 벗기는 '닥무지 작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손질된 닻나무는 김천중, 강갑석, 김인수, 최성일 등 전주한지장 4인에게 공급됐으며, 이들 장인들은 공결을 비롯, 종묘 보수용 한지, 전통한지 제 조용으로 사용해 왔다.

양 기관은 점진적으로 닻나무 수매 농가를 확대해 전주한지 원료공급의 기반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선태 원장은 "이번 닻나무 재배 면적 확대



전주산 닻나무의 재배면적이 확대된다.(사진은 닻나무 재배지 모습)

를 통해 국산닥의 원활한 공급은 물론 전주한지의 고품질화와 한지산업 부흥의 초석을 다

/장은성 기자

'보석의 도시 익산' 특별전 개최

내달 15일까지 귀금속·보석 산업 발전 과정·주얼리 산업체 대표제품 조명

익산시 귀금속·보석 산업의 발전 과정과 지역산업체 대표제품을 집중 조명하는 특별전 '보석의 도시, 익산' 주얼리 산업체 대표제품 전시를 개최한다.

올해로 2번째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1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보석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귀금속 보석의 유구한 역사적 계보를 이어받아 지난해 열렸던 감동과 여운을 고스란히 담아냄과 동시에 지역 내 주얼리 산업체의 새로운 제품을 홍보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대한민국전공예대전에서 입상한 전통공예 품부터 전통 청자를 접목해 현대 장신구를 제작한 작품 등 자체 주력상품으로 유럽과 중동, 북미 시장으로 수출해 매년 2천만 달러 매출

증가를 거둬들이는 20개 업체 189점의 독창적인 디자인 세계를 폭넓게 살펴볼 수 있다.

관경원 보석박물관장은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의 역사와 지역 내 생산 기업의 대표 제품을 알리므로 문화적 자긍심과 주얼리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며 "이번 전시가 보석의 도시 익산의 유구한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은 전국 유일의 귀금속·보석 공업 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귀금속·보석 고도화 육성사업을 통해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및 집적 산업센터 건립, 주얼리 유턴기업 유치 등 주얼리 산업의 고도화를 마무리 한 후 현재는 왕궁 보석가공 단지 내 보석 마을 조성 진행 중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고창 전문 문화기획자 양성 본격 시동

고창문화관광재단, 심화과정 '잇(익)는 학교' 오리엔테이션 가져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1일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교육 선발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 전문 문화기획자 양성 심화과정 '잇(익)는 학교'를 개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잇(익)는 학교'는 총 5회(주 1회)로 진행되며 나의 문제를 고창과 잇고 나의 기획을 지역에 펼치며 무르익어보는 실행 중심 교육으로 이뤄진다.

3시간 동안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은 과정 소개를 시작으로 기획서 작성 미니특강과 문화기획의 필요성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재단은 본 수강생을 대상으로 수료증을 발급하며 올해 운영될 '문화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사업', '청년 문화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해 기획 활동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지역 청년농부, 마을활동가, 요식 종사자 등 다양한 층위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교육생으로 선발됨에 따라 폭넓은 시각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잇(익)는 학교'는 5월 9일까지 진행되며, 수료생들은 지역 내 문화기획 전문 인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매주 토요일 버스킹식 농악공연 열린다

정읍시립농악단, 11월까지 사물놀이·사자춤 등 진행

정읍시립농악단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간 매주 토요일 버스킹식 농악공연을 선보인다. 공연은 하루 1회 오후 3시에 열리며, 매일



정읍시립농악단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매주 토요일 버스킹식 농악공연을 선보인다.

첫째 주와 셋째 주, 다섯째 주 토요일에는 정춘가요특구,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에는 내장산조각공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상설 공연은 산업화로 점차 사라져 가는 정읍농악 연행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사랑받을 문화상품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에서는 정읍농악 시연과 함께 사물놀이와 버나놀이, 사자춤, 12발 상모, 민요 등 전통 연희마당을 선보인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추진되는 만큼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소규모 야외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관련해 정읍시립농악단은 지난 9일 두 번째 상설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농악단은 내장산조각공원에서 정읍농악과 전통 연희마당을 선보였으며, 오는 16일에는 정춘가요특구에서 신명나고 화려한 우리 농악의 진수를 펼쳐 보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관람객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며 "앞으로 공연내용의 다양성을 통해 더욱 사랑받는 토요일 상설 공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우진문화재단, 22일까지 '전주완창무대' 소리꾼 공모

전주시와 우진문화재단은 '2022 전주완창무대'에 참가할 소리꾼을 오는 2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무대에는 만 25세 이상의 소리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판소리 다섯바탕별로 1명씩 모두 5명의 명창을 선정한다.

선정된 소리꾼은 오는 10월 15일부터 22일,

29일 11월 5일, 12일까지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자신의 기량을 맘껏 뽐낼 수 있다.

또 600만원의 출연료(고수 포함)가 지급된다.

접수는 우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이메일(wojin7223@naver.com)로 하면 된다.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받지 않는다.

/뉴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5일까지 하반기 정기대관 접수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2022년 하반기 정기대관' 접수를 오는 2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은 공연장 4곳(모악당, 연지홀, 명인홀, 야외공연장)과 전시장 4실(갤러리 S.O.R.I), 국제회의장이다.

공연장과 전시장, 국제회의장의 이용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이메일(kosac7842@naver.com) 또는 방문 접수로 할 수 있다.

신청서와 대관 가능일은 소리전당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는 내달 13일 공고할 예정이다.

/뉴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